

당신이 선택한 그 책의 제목과 저자는?

5월6일까지 ACC '비밀책방'

지역서점 추천 도서 블라인드 판매
아시아·가족·비밀·평화 주제
광주의 대표 독립서점 11곳 참가
'글쓰기 상담소' 등 북 워크숍도



ACC '비밀책방'에 참여하는 연지책방.

당신이 선택한 책 제목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는 누구일까?

'비밀책방'에서는 독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책을 고를 때 저자와 제목, 내용 위주로 선택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목과 저자를 볼 수 없다. 이른바 블라인드 판매. 그럼에도 힌트는 있다. 아시아, 가족, 비밀, 평화라는 네 개의 주제로 책과 작가를 가능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과 함께 ACC 라이브러리파크에서 '비밀책방'을 연다. 이번 '비밀책방'은 ACC 라이브러리파크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5월·7월·9월 제외)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체적인 주제는 'Enjoy 라이브러리파크! 도서관화프로그램'.

6월에는 'ACC와 북클럽 문학동네의 '광주의 기억', 8월 '청소년 여름방학 '보물책 찾기', 10월 '영화가 된 책 'Book & Movie'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오전 11시-오후 5시) 운영하는 '비밀책방'은 라이브러리파크 회정문 앞에서 진행된다.

검은책방 흰책방, 동네책방 숲, 라이트라이프, 맥거핀 (mcguffin), 삼삼한 책방, 소년에서, 손탁앤아이허, 연지책방, 책과생활, 타인의 책 지음책방, 파종모종 등 광주의 대표 독립서점 11곳이 참가한다.

비밀책방은 지역서점이 추천하는 도서를 블라인드로 위탁 판매하는 코너다. 언급한 대로 아시아, 비밀, 가족, 평화라는 4개의 키워드로 연관된 도서들이 가판대에 포장돼 있다.

평소 4개의 주제에 관심이 있었던 고객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책과 저자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비밀책방에 이어 모두 6개의 북 워크숍도 열린다. 3일에는 책과생활의 '글쓰기 상담소'가 진행된다. 평소 갖고 있던 내 생각을 글로 만드는 시간으로 미리 써온 글(원고지 10매 내외)을 상담자와 함께 읽으며 다듬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1인 또는 1그룹(2-3명) 씩 참여 가능하며 오후 2시, 3시, 4시 모두 3회 운영된다.

또한 3일에(오후 8시)는 타인의 책 지음책방의 '들꽃다발 만들기'가 예정돼 있다. 라이브러리파크 내 북라운지에서 식물·꽃과의 소통을 매개로 삶의 호기심, 기쁨과 행복의 의미를 가능해본다.

4일 오후 2시에는 맥거핀 (mcguffin)의 '비밀스러운 시선이야기'가 펼쳐진다.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는 것인지, 본다는 것의 답론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는 시간이다.

5일 오후 2시와 3시 30분에는 시인과 함께 시를 읽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 검은책방 흰책방이 주최하는 '비밀 낭독회'에는 이다희 시인이 참여한다. 서점에서 추천하는 시를 토대로 시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6일 오후 2시에는 라이트라이프가 '모바일 드로잉-책은 글보다는 그림이지'를 진행한다. 아이패드나 모바일 기기용 책표지 따라 그리기, 가족 사진 보고 그리기,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을 만들기 등과 같은 일러스트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6일 오후 4시에는 파종모종 '리틀북 워크숍'도 펼쳐진다. 한손에 들어오는 작은 규격의 책을 기획, 원고, 편집, 인쇄, 제본, 제단까지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원데이 워크숍이다. 또한 라이트라이프의 그림 그리기 수업 후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비밀책방 모든 워크숍은 사전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AC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01-403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종화 교수 광주서 피아노 리사이틀

5월 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자 마련했다.

12세 때 '일본 마이니치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일찍 재능을 알린 박종화는 '부빈슈타인 콩쿠르' 특별상(1998), '부조니 피아노 콩쿠르' 입상(2003)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소니 클래식과 첫 국내 앨범 '히어로즈'를 발표하고 2015년 '엄마야 누나야' 등 동요를 피아노곡으로 재해석한 두 번째 음반 '누나야'를 유니버설을 통해 발매했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전석 4만원(학생 30% 할인). 문의 062-360-8432, 843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문학관 면적 넓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

광주시, 규모 줄여 다시 제출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문학관 건립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타 광역시권의 문학관과 비교해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40억 이상의 문화시설 건립시에는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화문화마을(북구 각화대로 91)에 건립 예정인 광주문학관은 당초 제출한 면적은 약 4800㎡(지하1층·지상 3층)으로 광역시권 문학관보다 평균 3-4배 이상 넓은 규모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제출한 계획보다 규모를 줄여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재심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행안부 2차 심사는 오는 6월께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서는 처음 문학관을 건립하기 때문에 다소 의욕적으로 면적을 넓혀 제출했는데 타 지역 평균 1000~1200㎡보다 넓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고 밝혔다.

타 시도의 경우 부산 요산문학관은 약 749㎡, 대구문학관은 1302㎡, 인천 근대문학관은 1604㎡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규모를 약 2700㎡ 규모로 축소 편성해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기존의 기획상설 전시실, 수장고 등과 같은 기본 문화시설은 모두 들어간다. 1차 때는 전시실을 크게 평정했지만 이번에는 전시실을 줄여 신청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극단이 26~28일 연극 '달빛 결혼식'을 공연했다. <광주시립극단 제공>

영·호남 화합 30년전 시대상 답습 현 시대 시각 반영 대사·소품 없어

직설적 교훈 남발 피로감
무대·조명·음악 등 단조로워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로 남아온 영호남의 지역 갈등은 분명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1980년대와 2019년의 지역 감정은 30년의 세월 만큼 확연히 다를 것이다.

"지역 화합"이라는 교훈적 주제를 내건 광주시립극단 연극 '달빛 결혼식'은 30년 전의 접근 방식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해 보였다.

광주시립극단의 13번째 정기공연 '달빛 결혼식'이 26-2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상연됐다. 이는 1989년 초연한 나상만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의 '우월은 하난기라'를 각색한 작품이다. 영호남 화합이라는 주제 의식 아래 배치된 11개의 독립된 장면은 30년 전 시대상을 답습해 폭 넓은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관객들은 2시간 여 동안 하나의 주제로 일맥상통하는 장례식, 야구장, 청문회장 등에서의 에피소드를 경험했다.

'경상도 거지와 전라도 거지' '전라도 고참과 경상도 졸병' '전두환 군부시절 출범한 프로야구' 등 다양한 일화도 있었음에도 현 시대의 시각을 반영하는 대사

와 소품은 찾기 어려웠다. 여러 이야기 가운데 극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줄기는 전라도 총각 민규와 경상도 처녀 지영의 '영혼결혼식'이다. 객석을 관통하는 '상여행렬'부터 '영혼결혼식'이라는 에피로그까지 총 네 차례의 장례 장면이 나오며 비극적 결말을 알린다. 지역 감정이 심각했던 1980년대, 이들은 집안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다. 영호남 갈등의 희생양인 두 연인의 이야기는 지역 화합

의 당위성을 나타냈다.

이번 작품은 '은유'와 '복선' 없이 시종일관 '직설'로 이어진다. 코러스 공간에 있던 배우들은 장면마다 4-4조 음수율의 시조 형식으로 각주를 달았다. "지배자의 시대는 가고 이땅은 민주의 꽃이 피어야 한다" 또는 "우리는 어쩌면 죄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역감정을 조장했지만 우리는 지역감정을 실천해왔으니까요" 등 직접적인 대사는 관객들의 사고와 상상력을 제한했다.

에피소드가 11개나 되는 만큼 20여 명의 배우들은 1인 5역 이상 배역을 맡아 순간마다 다른 연기를 선보였다. 원로 연극인 이승호·김종진씨를 포함해 중견 배우들의 폭 넓은 연기를 만날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심지어 각각 박정희, 김대중 가면을 쓴 배우 조영철, 윤여송씨는 극 처음부터 끝까지 객석에 앉아 있긴 했다.

객석과 무대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은 공연 내내 지속됐다. 배우가 때로는 관객에게 발언권을 주며 상황에 따라 즉석 연기를 펼치는 장면은 지나치게 길어 지루했다. 충분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는 공지 없이 관객 모두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유도한 대목은 무리수였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고립된 호남을 표현하기 위해 고인인 된 김대중·김영삼·김대중 '삼김' (三金)을 가면을 쓴 꼭두각시에 빚든 부분은 신중함이 필요해 보였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의상·무대·조명·음악이 전반적으로 단조로워 볼거리가 부족했다.

한편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이번 공연에는 네 차례에 걸쳐 1200명의 관객이 찾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FACE 메이크업은 하시면서,
BODY 는 왜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십니까 ?

4주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속속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파동)

www.aroma-life.co.kr
1588-2219